

## Robert Vannoy, Exodus to Exile, 강의 7A

여호수아 1-5장, 요단강 건너기, 길갈 할례, 누워 있는 라합

검토

### III. 여호수아서

#### 가. 서론

#### 4.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설립에 대한 현대적 접근

지난 주에 우리는 로마 숫자 III, "The Book of Joshua"로 끝났습니다. 섹션 A. "서론"; 그리고 우리는 A-4, "이스라엘과 가나안 건국에 대한 현대적 접근" 유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유인물을 다소 빨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정복 모델을 조사한 다음 종종 수정된 정복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조사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파괴된 도시가 세 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류 성서 연구의 보다 현대적인 관점인 "이주" 모델과 "농민 반란" 모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멈춘 곳입니다.

#### B. 가나안 진입: 여호수아 1:1-5:12

##### 1. 여호수아의 사명 - 여호수아 1:1-9

그것은 우리를 III으로 인도합니다. B.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밤 시작할 곳입니다.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 1:1-5:12" - B 아래에 다섯 개의 하위 항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시에 시간. B 아래 하나는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 1:1-9." 당신은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신명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끝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그 후계자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나이다. 이제 너[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성공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와 심판이 따릅니다. 8절: “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번영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말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부여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 2. 백성들이 여호수아 1:10-18 아래 동원됨

2번 B. 아래는 “1:10-18장에 따라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입니다. 11절에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사흘 후에 너는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전에 다음 장이 있습니다.

## 3.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낸 이야기

2장은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백성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야기로, 윤리적 관점에서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여리고 왕의 신하들을 그릇 인도하여 ~ 아니다 그 스파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비난하거나 정죄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녀는 거짓말을하지 않았습니까?

## 1. 라합의 믿음

몇 분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여호수아 2장을 어떻게 읽든 신약성경의 두 구절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31이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 2:25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의 긴 목록을 열거하는 장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한 후 라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생 라합도 이와 같이 의로운 정탐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본문과 여호수아 2장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라합의 믿음이 그녀가 한 일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 나아와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나 그 여자는 두 남자를 데려다가 숨겼습니다. 그녀는 '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황혼이 되어 성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빨리 그들을 쫓으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은 상황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괄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8절을 읽으면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여 너희가 전멸시킨 일을 들었노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당신 때문에 모두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왜?]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보호한 그녀의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 비. 라합의 윤리

이제 그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확실히 토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제입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그들을 보호한 방식에 대해 잘못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따 성경, 특히 신약성경 본문에서 특히 그녀의 믿음에 대해 상당히 칭찬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백성을 보냈을 때 라합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왕과 그녀가 보호하고 있는 정탐꾼들에 대한 그녀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정탐꾼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여리고 왕에게 배신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저는 야고보서 2:25이 매우 긍정적으로 들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이 의로운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씨. 라합에 대한 논평

나는 이것으로 돌아와서 윤리적 문제의 예로서 그것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라합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구약에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여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의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리스도 자신의 혈통에 있는 이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복 이후 여선지자가 되어 결국 여호수아와 결혼했으며, 그녀의 후손 중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덟 명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유대 전승이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고 확실히 성경적인 증거도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 라합의 용기

여리고는 자체 왕이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정복한 왕들과 성읍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9절에서 당신은 “여리고 왕 하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따라서 각각의 왕이 있는 도시 국가로 구성된 영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일치하는 자체 통치자를 가진 도시 국가가 있었던 당시의 아마르나 서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그런 종류의 사회적 맥락에서 한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109조에서는 “무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당시 시민에게는 무법자를 신고해야 할 특정 의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녀가 한 행동은 그녀가 그 스파이들을 보호하다가 붙잡혔다면 그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감한 일을 했고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야훼가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믿었고 여리고 왕이 아니라 그 신과 그의 백성과 동일시되기를 원했습니다.

## 이자형. 라합의 윤리 - 거짓말

그녀의 행동의 윤리는 완전히 다른 주제이며,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그것을 바꿔서 그 질문에 또 다른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허용되거나 심지어 의무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뚝을 높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상황이 있습니까? 의무라함이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질문에 이르렀을 때 시작해야 할 곳은 아홉 번째 계명의 요구 사항의 맥락에 두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기본법은 윤리의 틀, 객관적 틀을 제공한다. 아홉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아홉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아홉 번째 계명의 특정한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1. 라합과 9<sup>월</sup> 계명

그렇다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의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금지의 언어, 특히 “거짓 증언하기”라는 문구는 우리를 사법 절차 또는 법리학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판, 즉 5-9계명에서 횡적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가 있습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덟, “도적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관계의 권위를 보호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이 금지된 여섯 번째에서 그는 생명을 보호합니다. 간음이 금지된 일곱 번째에서 그는 결혼을 보호합니다. 여덟 번째에서 그는 소유물을 보호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회 조직의 구조에서

매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그는 사법 절차를 통해 다른 계명을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그러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심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정의의 기초를 확보하거나 제공하십니다. 즉, 재판소가 있어야 하고, 사회 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계명 중 하나를 어긴 사람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사법적 절차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아홉째 계명의 문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의도에 관한 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판사나 혐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 사법 장치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증인을 불러 소장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선서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형을 선고합니다.

## 2.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이에 대한 법적 배경에 관해서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읍에 네 각 지파를 위하여 재판관과 관리를 두어 백성을 공평히 재판하게 하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의를 구부리거나 편벽을 두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오직 공의와 정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각 고을마다 재판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역대하 19:5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판단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위함이니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두라. 삼가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공정도 편파도 뇌물도 없느니라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사법 절차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절차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에게 의존했습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십시오. 신명기 19:15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아홉 번째 계명의 표현으로 되돌립니다. 그 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여호와께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되면...”) “... 그 증인이 그 형제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여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고자 하던 대로 그에게도 행하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야 한다. 나머지 백성은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따라서 거짓 증언은 불의를 초래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면(그가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것이 무엇이든, 범죄가 무엇이든) 자신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사건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중서부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남성을 고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으며 10년 또는 15년을 복역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DNA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썄요, 그는 거짓 증언을 근거로 10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에게 이 일로 고발한 여성은 실제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형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법 제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법 절차의 맥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규정을 두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종종 시스템을 뒤집어 놓고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보호를 보장하는 절차를 주셨고 종종 사람들은 그 절차를 사용하여 불의를 일으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 3. 또 다른 예: 나봇의 포도원(열왕기상 21장)

또 다른 구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묘사하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페니키아 출신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은 나봇이 그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기업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고로 아합이 근심하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자기 위에 누웠더라"고 말한다. 침대에서 췌그리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팔고 원하시면 그 자리에 다른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 기운을 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나봇의 성읍에 그와 함께 거주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악당 두 명을 그의 맞은편에 앉히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십시오.'" 즉,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십시오.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나봇의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쓴 편지에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혔습니다. 그때 악한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뭇을 고발하여 이르기를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나뭇은 끌려나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 4. 또 다른 예: 예수(마태복음 26:59)

마 26:59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에 제신 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이 거짓 증거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많은 거짓 증인 앞으로 나왔다.” 이는 정의보다 불의가 승리하도록 사법 절차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라합의 행동을 아홉 번째 제명 조항의 맥락에 놓으면 그 제명이 구체적으로 사법 절차와 사람의 말이 공의를 일으켜야 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과 관련하여 불의가 만연하기보다는, 아홉째 제명의 더 넓은 의도에 관한 한, 나는 그것이 확실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자의 한계와 사법적 상황에서 그 기능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명의 정신 또는 더 넓은 의미는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를 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증거 또는 말로 이웃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웃의 정당한 권리는 법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말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절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 사실일 수 있는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더 이상 관련이 없지만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킵니다. 나는 그것이 이 제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5. 거짓말이 허용됩니까?

#### 1. 4 포지션

그러나 아홉 번째 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라함이 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이웃에게 불의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종종 더 무뎡뎡하거나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식화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대리인이 들어오고 그녀는 말합니다. “예, 그들은 여기 있었지만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숨겼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허용됩니까?"라는 질문을 공식화한 다음 답변된 방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고 조금 논의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허용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예외 없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입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은 "거짓말이 허용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윤리의 맥락에서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법칙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Joseph Fletcher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상황 윤리* 이것이 그가 주장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의 법칙을 적용하고 그것이 당신을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답입니다. 나는 그 입장이 성경적 규범과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십계명은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다 객관적인 표준이지만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거짓말이 허용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따릅니다. 오직 의무가

충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견해의 옹호자들은 의무의 충돌이 있는 특정한 극단적인 상황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제 9제명의 정신이 현실에 상응하는 어떤 공식적 진술, 즉 "진실." 의무의 충돌에서 아홉 번째 제명의 정신은 완전한 진리에 대한 형식적인 진술보다 우선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네 번째 답변입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적어도 정의상 거짓말이 아닌 상황을 허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재정의합니다. 이제 "그건 의미론일 뿐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네 가지 위치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허용됩니까? 아니, 절대. 아니면 도덕의 기준이 없는 상황 윤리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셋째, 아홉 번째 제명의 정신이 율법의 문자보다 우선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상황의 충돌이나 의무의 충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이 허용됩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오"이지만 "거짓말"은 적어도 정의상으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을 허용하기 위해 재정의됩니다.

#### 비. 4가지 입장에 대한 논의

먼저 3편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허용됩니까? 예, 하지만 이러한 의무의 충돌이 있고 아홉 번째 제명의 정신이 진리의 공식적인 진술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아홉 번째 제명의 맥락에 두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제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제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제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이 관련된

공식입니다. “네 말로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제 생각에는 꺾긋 거짓말에 대한 단순한 비인격적인 금지와는 다른 표현을 제명에 부여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련된 금지입니다. 그 본질은 “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귀하의 이웃 및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는 귀하와 귀하의 이웃이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당신의 이웃,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현실과 이웃 모두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위해 이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의무 충돌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웃에 대한 의무와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현실 목적보다 더 높은 의무로 여겨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현실에 상응하는 어떤 형식적인 진술에 묶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율법의 문자(즉, 아홉 번째 제명)를 그 정신이나 의도에서 분리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엄격하게 형식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고수함으로써 실제로 명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문자를 고수하는 것은 실제로 법의 정신이나 의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정신이 문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추상적인 진실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불의가 아닌

이웃에게 정의가 임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의 충돌이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합과 같은 사람은 그녀가 행한 일을 함으로써 아홉 번째 계명의 정신이나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 씨. Charles Hodge의 토론

이제 네 번째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 옹호자들은 "거짓말이 허용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합니다. 46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Charles Hodge의 조직신학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그의 논의, 여기서는 특히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그의 논의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의 논의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길고 상세하지만 그의 3권은 조직신학 십계명의 의무와 의무를 설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가 한 말에 유의하십시오.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동족 여자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불순종했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그들은 '히브리 여자는 이집트 여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파들을 선대하시매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였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이 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주었느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꼬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15장에서 왕으로 거절당했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후임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사무엘이 반대하여 가로되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하라 .'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기만을 실제로 명령한 경우라고 한다

. 사울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의 목적에 대해 속임을 당했습니다.

더욱 두드러진 것은 열왕기하 6:14-20에 기록된 엘리사의 행실입니다. 아람 왕이 도단에서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하매 그가 그 말씀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더라 엘리사의 말이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여기는 성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았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즉 그들의 적의 손 안에] 있더라.'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이 상함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 이런 종류의 속임수의 예는 구약성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여겨졌는가를 나타내는 아무 것도 없이 단순히 기록된 기록일 뿐이고, 위에 인용된 경우와 같은 다른 것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수입에 의해 신성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Hodge는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평합니다. 적의 의도된 움직임을 숨길 뿐만 아니라 적의 의도를 오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군사 지휘관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대응을 고려하면서 적의 의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에서 꽤 흔한 절차입니다.” 물론 이라크 전쟁에서 그들은 이 모든 해병들을 배에 태워 해안가에 배치했습니다. 특정 방향에서 침입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대쪽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도가 예상될 때 집안 식구들이 경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목적으로 방에 불을 켜두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Hodge는 또 다른 흥미로운 그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면 매일 밤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고 10시나 11시에 꺼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한 근거에서 일반적으로 거짓 범죄에는 거짓과 속이려는 의도에 대한 진실과 의미뿐만 아니라 일부 의무 위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선언과 의미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장군은 그의 의도된 움직임을 적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그의 적은 그의 결보기 의도가 그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시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을 확보하고 목숨을 앗아가도록 도울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규칙이 강도가 지갑을 요구할 때 적용된다고 종종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Hodge)의 논평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녀의 아이를 쫓는 살인자를 본다면, 그녀는 그녀의 힘이 닿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오도할 완벽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 높은 의무에 비추어 당분간 병합되거나 상실됩니다.” 즉, 자녀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모든 의무가 있습니다.

Hodge는 “이 원칙은 가능한 남용 또는 실제 남용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남용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조심하고 무게를 달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크게 남용되었습니다. 예수회는 교회의 이익을 증진할 의무가 다른 모든 의무를 흡수하거나 대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도에서는 유보적인 거짓뿐 아니라 위증, 강도, 심지어 암살까지도 교회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저질러질 경우 합법이 되었습니다. 남용에 대한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의무가 더 낮은 의무를 면제한다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세 번째 답으로 돌아갑니다. 더 높은 의무와 의무의 충돌입니다. 의무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더 나아가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Hodge의 위치를 3위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문제는 독단주의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옳은지 여부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거짓말을 구성하는가?'입니다. 거짓 진술, 거짓 진술이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무가 있을 때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Hodge의 입장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죽거나 살인을 방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거짓 신을 믿는다고 공언함으로써 기독교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형제의 생명을 구하도록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지휘하는 장군의 경우, 그의 진정한 의도를 적에게 암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우 의도적인 기만은 도덕적 거짓이 아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렇게 표현하면 Hodge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암시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정의상 아닌 상황을 허용하기 위해 거짓말이 무엇인지 재정의합니다. 거짓말로 간주.

디. 월터 카이저: 거짓말은 항상 잘못되었고, 라함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답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아마도 첫 번째 관점의 현재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월터 카이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에 있는 그의 대답이다. *구약 윤리*를 향하여. 이 질문에 대한 논의에서 카이저는 파라오에 대한 응답에서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라함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는 우리가 잠시 후에 인용할 또 다른 사람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만든 구별에 대해 그의 주장의 대부분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폐와 거짓말을 구분합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라함과 그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한, 그는 라함이 그녀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49페이지를 보십시오. 중간 단락에서 Kaiser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믿음이 공존할 수 있고 불신앙의 연약함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믿음의 여인으로 라함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함은 정탐꾼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 25절: '라함도 아니라 그 창녀가 정탐꾼을 유숙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어 행한 일을 의롭다 하더냐?' [그러나 그의 논평은 이러하니라] 라함의 믿음의 영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녀가 신성한 인정을 받은 것은 그녀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왕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더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증거는 정탐꾼들을 받아 다른 길로 내보내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정탐꾼을 숨기고 합법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윤리의 타당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Kaiser의 견해로는] 그녀의 거짓말은 위의 두 가지 승인된 응답 모두에 불필요한 추가 요소였습니다.

” 그게 그녀가 진실을 말할 거라면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Corrie ten Boom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밀반입하는 앤드루 형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질문을 보류하십시오.

히브리 산파에 관한 49면의 마지막 논평에서 카이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경우와 같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없지만, 산파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할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리오의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히브리 남성 출산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반응은 칭찬할 만하며 구약 윤리에 따라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참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했을 때 라합,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비난받을 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Kaiser의 해당 단락을 읽었으며 앞서 언급한 그의 견해는 실제로 그가 거짓말과 은폐를 구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8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그는 Asa Mahan이 이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평했으며 Mahan도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다른 교파. 속임을 당한 사람은 진실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된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행위로 인한 의무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문장: “거짓말은 은폐와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일 권리가 없는 개인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적절합니다. 은폐는 은폐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죄입니다.” 이것이 그가 만드는 구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정의의 중요성은 도덕적 악이 아닌 은폐가 있었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han은 은폐가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합당하거나 심지어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사례가 이러한 상황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은폐는 진실을 숨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상실했거나 그 진실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 없을 때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상 16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1-3에서 사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왕으로 삼았노라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듣고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소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있는 말을 보라 Murray는 여기에서 Samuel이 Jesse를 방문한 주요 목적을 공개했을 진술 이외의 진술을 통해 은폐할 수 있는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거짓을 말할 특별한 특권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점은 일부 상황에서 은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만이 사울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사울의 궁극적인 의도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입증되거나 부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사울의 마음을 자극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그가 사무엘을 대면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피하거나 사울의 공개로 분노에 직면해야 할 완전히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카이저가 여기에서 차이 없이 구분을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사무엘은 그곳에 갔을 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너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말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사울이 그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두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었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속임수가 아닙니까? 속이는데 목적 아님? 당신은 그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속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요청을 받았고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면 그는 속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단지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무엘상 16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질문을 받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면 그 결과는 고의적인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Kaiser가 제안한 것처럼 구분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형.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유대인을 보호하는 코리 텐 붐

이제 라함이 무엇을 말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나는 Corrie ten Boom이 많은 난민들을 숨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참고 문헌에 있는 "라함의 거짓말은 죄였습니까?"라는 기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피터 반스. 그는 Corrie ten Boom이 많은 난민, 특히 나치 폭정에서 탈출한 유대인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코리 텐 붐은 게슈타포로부터 숨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와 함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게슈타포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함은 진실을 말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예외 없이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라함이 "그들은 지붕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접근 방식으로 J. I.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녀의 말은 불의가 아니라 이웃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Rushdoony는 "Rahab가 Corrie ten Boom이 한 것처럼 진실을 말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이 그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하는 악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과 평행을 이룹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는 쓸모없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여기에는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 에프. 앤드류 형제와 성경 밀수

저는 앤드류 형제의 성경 밀수에 대해 언급했고 그의 책에 대한 평론에서 밀수의 윤리, Greg Brahnson의 리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앤드류는 성경을 밀반입할 때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앤드류는 자신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관찰에 대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는 국경 수비대에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앤드류의 논의에서 그는 은폐와 거짓말 사이의 구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은폐와 거짓말 사이의 구별을 조심해야 한다. 내 자신의 사역에 관한 한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때때로 그것의 관련된 부분을 숨긴다고 설명합니다. 때때로 그는 경비원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는 그들을 속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특수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만일 안드레가 청증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책략을 통해 청증을 고의로 오도함으로써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흥미로운 윤리적 질문이며 복잡합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사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이러한 예는 폭력적인 전체주의 정부 또는 전쟁 조건의 맥락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자주 부딪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체주의적 압제적 정부 아래 살고 있다면,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아마도 이런 종류의 윤리적 딜레마를 꽤 끊임없이 안고 살 것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내는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는 동안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암스테르담을 행진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쏘는 독일군을 잘 기억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 기간 동안 집에 일부 유대인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금 살고 계시지 않지만 라합의 경우처럼 독일군 중 한 명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에 사람이 숨어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문을 열고 “네, 그들은 벽장 속에 숨어 있어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 독일군을 오도하거나 속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들의 말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그 범주에 속합니다.

## B.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다

### 4. 요단을 건너다 - 여호수아 3:1-5:1

#### 1. 강 건너기

그것은 모두 B. 3.,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것” 아래에 있었습니다. 4. “요단을 건너다: 여호수아 3:1-5:1”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에 직면했습니다. 군사적 상황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누군가를 매우 불리하게 만듭니다. 3장 2절에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 3일 동안 진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추수하는 동안 내내 범람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장벽을 바라보고 있으며 강물은 홍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거기에 있었고 홍수 단계가 아니라 전기였습니다. "the Mighty Jordan rolling"에 대한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Jordan처럼 보이지 않고 작은 개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단계에서는 꽤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그런 종류의 흠에서 쏟아져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당신이 할 방법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라 보라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디면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어져 무더기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b절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읽습니다.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멈췄다. 그것은 아주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르단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는데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강의 흐름이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이 흐르기를 그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때는 정확히 그 때였습니다. 완전히 끊어지자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NIV 스터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13절에 "아래로 흐르는 물이 끊어져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압북 어귀 근처 아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산사태와 같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요단강을 댐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인 1927년에 이 지역의 물이 막힌 것이 20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기적적인 요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르단 강은 양쪽에 벽이 있는 좁은 협곡을 통과하며 산사태나 지진으로 요르단 강이 막힌 사례가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 주석이 말하듯이 "기적적인 요소는 줄어들지 않는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정확히 시간을 정하셨고,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 비. 스톤 설정: 케른

그것이 3장입니다. 4장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 12개를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한 열두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건너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너희 중에 표를 삼으라 훗날 당신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물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의 물이 끊어졌다고 그들에게 고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습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4장 21절로 내려가서 그 열두 돌이 실제로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는 “장차 네 자손이 그 조상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을 말리시고 너희가 건너게 하셨음이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건너기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말리실 때에 홍해에 행하신 것과 같이 요단에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24절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출애굽의 재앙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슷한 이야기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 씨. 홍해 횡단과 병행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한 또 다른 점은 모세의 리더십이 출애굽 당시에 입증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비슷한 방식으로

인증되었다는 것입니다. 3:7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니라.” 이는 출애굽기 14장 31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홍해에서 구원받은 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이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습니다.

#### 5. 할례와 길갈 진영 - 여호수아 5:2-12

5로 갑시다. 그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5. “할례와 길갈 진영: 여호수아 5:2-12”입니다. 5장 1절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지 않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려는 가나안 사람들의 의지는 두려움 때문에 제거되었고, 내가 보기에 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며칠을 전쟁보다는 예배와 언약 갱신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닥치겠지만, 이스라엘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랄롯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이러하니 곧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곧 군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광야에서 난 백성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십 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세대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광야 기간 동안 그 모든 남자들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시편 95편에도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38년 형으로 징죄하사 “네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에 1년을 사십 년 동안 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한 다음 다음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너.” 그러므로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시편 95:9을 보십시오. 그것은 “네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단련한” 므리바와 맛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으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38년 동안,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것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할례 언약의 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행해질 것이며, 여호수아 5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받습니다.

### 길갈에서의 유월절

그런 다음 유월절을 지킵니다. 5장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더라”고 말한다. 광야 방랑 2년째부터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에는 유월절 준수가 있었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그 때 준수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9장의 유월절 준수에 대한 언약을 제외하고 출애굽 후 2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직 시나이 에 있을 때 유월절 준수에 대한 언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무할레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인은 먹지 못할지니라. 네가 산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48절 끝으로 내려가십시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되느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세대가 있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의 백성과의 언약 교제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곧 그들이 참여하게 될 다가오는 전투에 직면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케이트 다나히의 각본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Elizabeth Fisher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재연설